

이 보도자료는 2019. 1. 24. 12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서울남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범기

전화 02-3219-4323 / 팩스 02-3219-4222

## 보 도 자 료

2019. 1. 24.(목)

자료문의 : 기업·금융 범죄  
전담부(형사6부)  
전화: 02-3219-2412  
팩스: 02-3219-2580  
주책임자: 부장검사 김영일

### 제 목 **IBK투자증권(주) 채용비리 사건 수사결과**

-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IBK투자증권(주)의 2016~ 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여,
- 금일(1. 24.)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, 인사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, 부사장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  - 아울러 IBK투자증권(주)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음
- 수사한 결과,
  - 2016~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하여 그 중 3명을 최종 합격시키고,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여성 지원자 20명의 면접 등급을 하향 조작한 사실이 드러남

## 1 피고인 및 주요 범죄사실

### ① 피고인

- A○○ [61세, 前 부사장], 불구속 기소
- B○○ [50세, 前 경영인프라본부장(상무), 現 시너지추진위원], 구속 기소
- C○○ [45세, 2016년 인사팀장, 現 인사부장], 불구속 기소
- D○○ [47세, 2017년 인사팀장, 現 고객만족부장], 불구속 기소
- IBK투자증권(주) [남녀고용평등법위반 양벌규정 적용], 불구속 기소

### ② 범죄사실 요지

- (A○○ → B○○ → C○○)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시 청탁 지원자 1명의 등급을 상향 조작하여 최종 합격시킴(업무방해)
- (B○○ → C○○)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시 청탁 지원자 1명의 등급을 상향 조작하여 최종 합격시키고, 여성 지원자 11명의 등급을 하향 조작하여 불합격시킴(업무방해, 남녀고용평등법위반)
- (B○○ → D○○) 2017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시 청탁 지원자 2명의 등급을 상향 조작하여 그 중 1명을 최종 합격시키고, 여성 지원자 9명의 등급을 하향 조작하여 불합격시킴(업무방해, 남녀고용평등법위반)
- (C○○)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시 청탁 지원자 2명의 서류 및 1차 면접 등급을 상향 조작(업무방해)

## 2 주요 수사경과

- '18. 10. 22. 금감원 수사참고자료 접수
- '18. 11.~12. IBK투자증권 인사부, 피고인들 및 주요 참고인 등 2차례 압수수색
- '18. 11.~'19. 1. 피고인들 및 실무업무 담당자, 심사위원, 탈락자 등 조사
- '19. 1. 7. 피고인 B○○ 구속
- '19. 1. 24. 피고인들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

### 3 수사결과

#### ① 부정채용 구조

- IBK투자증권(주)은 2016~2017년 상반기에 「서류 → 1차 실무면접 → 2차 임원면접」을 거쳐 최종 신입직원을 선발
- 내부 및 외부에서 청탁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위 단계별 전형 평가결과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 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하여 합격권으로 변경

#### ② 청탁에 따른 부정채용

- 피고인들은 전임 사장 등 전·현직 상급자나, 지인,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이들에 대해 전형 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됨
-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나 중요 거래처 대표 이사의 친인척에 대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하는 등 채용을 개인의 사적이익이나 회사의 실적 등의 도구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됨

#### ③ 성 차별에 따른 부정채용

- 2016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135명(61.6%), 여자 84명(38.4%)이었으나, 최종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(15.4%)이었고, 2017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135명(55.10%), 여자 110명(44.90%)이었으나, 최종 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(11.11%)에 불과하였음
- 이와 같은 배경에는 남성 신입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단계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하여 불합격시킨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